

칸 영화제 초청 ‘아가씨’ 제작발표회 “대사 많고 아기자기” 색다른 박찬욱 영화



영국소설 ‘핑거 스미스’ 원작

한국영화로는 4년 만에 칸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영화 ‘아가씨’가 그 베일을 벗었다.

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박찬욱 감독과 김민희, 김태리, 하정우, 조진웅 등 주연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가씨’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아가씨’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을 배경으로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인 이모부 코우즈키(조진웅)의 보호를 받는 히데코(김민희), 그리고 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백작(하정우)과 하녀(김태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히데코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지만 세상 물정에 무지하고 이모부의 서재에서 책을 읽는 것이 일상의 전부인 인물이다. 외로운 히데코는 어느 날 찾아온 하녀 숙희에게 의지하게 되나 숙희는 전설적인 여도둑의 딸이자 장물아비 손에서 자란 소매치기다. 히데코를 속여 결혼하고서 그의 재산을 가로챈 계획인 백작으로부터 도망달라는 제안을 받아 히데코에게 접근한 것.

백작은 일본인 귀족이기는커녕 무당과 머슴 사이에 태어난 비천한 출신으로, 영리한 머리와 노련한 처세술,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무장한 사기꾼이다. 박찬욱 감독은 이날 제작보고회에서 “제가 만든 영화 중 제일 대사가 많고 굉장히 아기자기한 영화”라며 “깨알 같은 잔재미가 가득해 제 영화 중 제일 재미로운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전작이 “말보다는 행동이나 미장센으로 많이 표현된 영화”였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현대 일상의 표현에서 벗어난 수사가 동원되고 멋들어지고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대사를 마음껏 해봤다”며 “대사가 많은 영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영화는 영국 소설 ‘핑거 스미스’를 원작으로 한다. 영화 ‘올드보이’(2003)의 프로듀서이자 ‘올드보이’의 원작 만화를 영화화할 것을 처음 박 감독에게 제안한 임승용 프로듀서가 이번에도 ‘핑거 스미스’의 영화화를 권했다.



배우 조진웅(왼쪽부터), 김민희, 박찬욱 감독, 김태리, 하정우

박 감독은 ““핑거스미스”를 읽고 나서 완전히 반했다”며 “각색한 작품을 원작자에게 보냈는데 작가는 자기 작품과 상당히 다르니 ‘based on’보다는 ‘inspired by’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원작자인 세라 워터스와 의 대화를 전했다. 그는 “자기 것과 꽤 다르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감독은 소설을 영화로 각색하면서 사건의 무대를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 1930년 일제강점기의 조선으로 옮겼다. 신분제도가 남아 있으면서도 정신병원이라는 근대 기관이 등장하는 시대, 봉건 질서가 유지되면서 다른 한편 자본계급이 등장하는 시기를 생각하면 그때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 감독은 “한국과 일본, 일본을 통해 들어온 유럽, 이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어떤 때는 조화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색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세계를 묘사하는 시점으로 그때가 좋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는 ‘숙희’ 역을 맡은 신인 배우 김태리의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하다. ‘숙희’ 역의 오디션에서 1500명의 지원자 중 김태

리를 뽑은 것은 “본능적인 직감의 선택이었다”며 “굳이 표현하자면 연기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고 주눅이 들지 않은 점을 높이 샀다”며 캐스팅 이유를 밝혔다.

‘아가씨’는 한국영화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4년 만에 초청된 작품이면서도 박 감독으로서 세 번째 초청이다.

그는 ‘올드보이’로 제57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박쥐’(2009)로 제62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대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로 “예술영화가 모이는 영화제에 어울릴까 싶을 정도로 제 영화는 명쾌한 영화”라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해피엔딩이 모호한 구석이 없는 후련한 영화”라며 “그런 영화제는 점점하고 모호한 영화를 좋아하지 않나. 그 사람들(심사위원들이) 제 영화를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가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제작보고회에 300여명에 달하는 취재진이 몰렸다.

연합뉴스

2회만에 시청률 20% MBC ‘옥중화’

고수 이종 연기 눈길

MBC가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은 주말극 ‘옥중화’가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20% 고지에 올라서며 기대에 부응했다.

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옥중화’ 2회의 시청률은 전국 20.0%, 수도권 21.9%.

전국 시청률 기준으로 1회 17.3%보다 2%포인트 넘게 올랐다.

앞서 큰 인기를 끌며 최고 시청률 35.9%를 기록한 ‘내 딸, 금사월’의 1~2회 시청률인 14.7%, 15.9%보다도 좋은 성적이다.

1회가 주인공 옥녀의 탄생을 보여주며 드라마의 무대가 되는 전옥서(조신지)의 교도소를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면 2회는 조선상단을 이끄는 미스터리한 인물, 윤태원(고수 분)이 이끌었다.

2013년 ‘황금의 제국’ 이후 오랜만에 브라운관으로 돌아온 고수는 ‘박탈’을 거쳐 허허실실 웃다가도 눈 깜짝할 사이 누군가의 목



숨을 빼앗는 양면성을 가진 윤태원을 강렬하게 연기해냈다.

3회부터는 옥녀의 성인役이자 주인공인 진세연이 등장하며 50회의 긴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한편 이날 방송된 주말드라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KBS 2TV ‘아이가 다섯’이다.

이상태(안재욱)와 안미정(소유진)이 알콩달콩한 연애를 이어가면서도 재혼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그린 ‘아이가 다섯’은 26.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MBC ‘가화만사성’은 16.3%, SBS TV ‘그대 그대야’는 10.3%, SBS ‘미세스캅 2’는 10.0%였다.

연합뉴스



안방극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배우 김혜선(47)의 5월 결혼 소식이 2일 전해졌다. 김혜선과 사업가로 알려진 예비 신랑 이차용씨는 최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이같이 알려지면서 “잘 살아갈 테니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두 차례 이혼했던 김혜선은 “살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염원을 가지고

5월 신부 배우 김혜선 “우리 잘 살게요”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믿음을 갖고 의지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손잡고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선은 1980~1990년대 히로라, 이상아와 함께 청춘스타로 이름을 날렸으며, 드라마에서 억척스러운 엄마나 권력욕 많은 사모님 등 다양한 역할로 등장하고 있다.

김혜선은 지난해 방송된 SBS TV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빛을 쬐던 중 지금까지 당했을 때 봉사활동 단체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다”며 남자친구 존재를 처음 밝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월에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불교 골지락 30 아침연속극(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디큐멘터리 3일(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옥중화(재))	00 닥터 365 05 세기의 라이벌 미려를 만든 천재들(재)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유지토코소 가요1번지 55 별별가족	00 1대100(재)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골지락
2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숨터(재) 0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5 튜브생활체조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똑? 똑! 키즈스쿨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아빠 어릴 적엔 25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 당신)(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톡톡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목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골지락 20 일일드라마(마녀의 성)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 킱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동네변호사 조들호)	00 월화특별기획(몬스터)	00 월화드라마(대박)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20 해외결적다큐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건강안아침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우간다 르윈조리트레일) 06:10 EBS 특별기획 통찰(재) 07:00 레이디 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덩동영 유치원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코코콩3 09:20 원더볼즈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온 안들이고 영재 키우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돼지고기볶고추름, 오이고추무침)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간-우리 12:40 지식채널e 12:50 숨은 한국찾기 13:3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즈 14:00 로보카 폴리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15:30 피터래빗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16:00 코코콩3 16:30 코코코 다코(재) 16:45 덩동영 유치원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주방 기구 재가공)	20:40 다큐 오늘 (거꾸로 가는 기차) 20:50 세계테마기행 (페르시아 문명을 걷다.이란) 21:30 한국기행 (불나물발전) 21:50 EBS 다큐프라임 (화산-백두산 대폭발의 진실) 22:45 리얼극장 행복 (방준호의 무명가수 20년) 23:35 시대공간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고전, 인간을 말하다 오디세이아 2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일(음 3월 27일 乙酉)
<p>子 48년생 각양각색으로 천차만별하니 참으로 현란하겠다. 60년생 의문을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기쁨이 있다. 72년생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84년생 지난날의 실적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 힘이 된다. 행운의 숫자 : 76, 82</p>	<p>午 42년생 분주한 과정에서 놓치지 쉬운 것이 여러 가지 보인다. 54년생 내색하지 않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66년생 예비본의 확보가 꼭 필요한 판세에 놓여 있다. 78년생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45, 54</p>
<p>丑 49년생 술선수범한단편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다. 61년생 부수적인 일은 부류하고 실속 있는 일을 도모해야 한다. 73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생산적인 시국으로 이끈다. 85년생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에 충실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9, 19</p>	<p>未 43년생 함께한다면 부가적 이익이 상당히 크다. 55년생 규안이 맹관인 법이니, 새것보다 옛 것이 더 나은 것이다. 67년생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이다. 79년생 조건 없이 조력하는 이의 성의가 기록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5, 62</p>
<p>寅 50년생 약에 거칠 것 없이 부드러운 운로이다. 62년생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주려 갔다가 오히려 받고 오는 양태이다. 86년생 지나친 것보다는 차라리 못 미친 것이 더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10, 73</p>	<p>申 44년생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편하다. 56년생 변경시킨다면 상대적으로 의혹을 살 수 있다. 68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습하기 힘들어진다. 80년생 시일이 지날수록 진가를 더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78</p>
<p>卯 51년생 중구적으로는 해결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63년생 사실과는 거리가 멀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75년생 여건이 불리하니 참고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맞다. 87년생 편의만을 도모하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2, 70</p>	<p>酉 45년생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57년생 갈끔한 마무리는 많은 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다. 69년생 들고 접하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81년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꼭 이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9, 75</p>
<p>辰 40년생 소모적인 경쟁보다 생산적인 화합이 옳다. 52년생 할로가 트이는 기분이 조성되리라. 64년생 마지막을 주목하라. 76년생 잠자코 있는 편이 낫다. 88년생 이루는 것 못지않게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2, 06</p>	<p>戌 46년생 순풍에 돛을 달고 바다로 나아가는 위상이다. 58년생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날이다. 70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따라 없다. 82년생 마음을 달리 먹는다면 기쁜 상할 일 아니다. 행운의 숫자 : 90, 28</p>
<p>巳 41년생 평상시대로만 진행하라. 53년생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일부도 나아가기 어렵다. 65년생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 놓여 있다. 77년생 대세는 기울었다. 89년생 하향 조절하는 것만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행운의 숫자 : 23, 34</p>	<p>亥 47년생 미리 의사를 개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 59년생 망각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71년생 정답은 의외로 쉽게 찾아질 것이니 노파심에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83년생 과정에 충실한다면 득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50, 71</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